

1.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

1) **높임 표현** :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청자의 ()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

예문	높임의 대상	높임 표현의 종류
할아버지께서 여행을 가신다.	할아버지 (서술의)	() 높임법
동생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서술의)	() 높임법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	() 높임법

Q. 주체란? 문장 안에서 서술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대상 ... ()와 일치

Q. 객체란? 문장 안에서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 ()와 일치

(1) **주체 높임법** : 서술의 ()를 높이는 방법

- 직접 높임 : 높여야 할 대상을 직접 높이는 것
- 간접 높임 : 높여야 할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소유물, 주체와 관련된 사물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 **예** 아버는 시력이 좋으시다.

실현 방법	(주격) 조사 '-께서' 사용 주체 높임 () '-(으)시-' 사용 특수 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등 사용
예문	
어머니께서 노래를 부르신다.	
어머니/께서/노래/를/부르-/-시-/-ㄴ-/-다.	▷ 주격 조사,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
저기 할아버지께서 오신다.	
	▷
아버지께서 방에서 잠을 주무신다.	
	▷
할머니께서 귀가 밝으시다.	
	▷

(2) **객체 높임법** : ()나 ()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를 높이는 방법

실현 방법	() 조사 '-께' 사용 특수 어휘 '모시다', '드리다', '여쭙다' 등 사용
예문	
나는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렸다.	
나/는/할아버지/께/선물을/드리-/-었-/-다.	▷ 부사격 조사,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
하성이 문제를 아버지께 여쭙다.	
	▷
경민이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
선율이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갔다.	
	▷

(3) 상대 높임법 : ()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

실현 방법	()을 통해 실현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격식체	하십시오체 (아주높임)	합니다	합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	-
		하오체 (예사높임)	하시오	하시오?	하시오 하구려	합시다	하는구려
		하게체 (예사낮춤)	하네 함세	하는가? 하나?	하게	하세	하는구먼
		해라체 (아주낮춤)	한다	하느냐? 하니?	해라, 하거라 하렴, 하려무나	하자	하는구나
	비격식체	해요체 (두루높임)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요
해체 (두루낮춤)		해	해?	해	해	해	
격식체	공식적이고 의례적인 표현, 심리적인 거리감 大,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추어야 할 때 사용						
비격식체	비공식적이고 친근한 표현, 비교적 부드럽고 친근감을 나타냄, 상대적으로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을 때 사용						

예문

(직원이 승객에게) 손님, 위험하니 자리에 [앉으십시오 / 앉아라].

▷ 격식체, 하십시오체, 명령형 / 격식체, 해라체, 명령형

(학생이 어머니에게) 엄마, 여기를 [보게 / 보세요].

▷

(선생님이 학생에게) 신형아, 이것을 도현이에게 [주어라 / 주시오].

▷

2) 시간 표현 - 시제 : 화자가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시간을 구분하여 나타내는 표현

- 발화시 : ()가 말하는 시점

- () :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

(1) 과거 시제 :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정보다 () 시제, [사건시 발화시]

실현 방법	선어말 어미 ‘-았/었-’, ‘-았었/였었-’ 관형사형 어미 ‘-(으)ㄴ’
예문	
나는 어제 도윤이와 비빔밥을 먹었다. / 어제 먹은 비빔밥은 참 맛있었다.	
도현이가 야간 자율 시간에 잠을 잤다. / 잠을 잔 도현이가 선생님께 혼났다.	

(2) 현재 시제 :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과 말하는 시점이 () 시제, [사건시 발화시]

실현 방법	선어말 어미 ‘-는/ㄴ-’ 관형사형 어미 ‘-는/(으)ㄴ’
예문	
지후가 교실에서 김밥을 먹는다. / 지후가 먹은 김밥에서 냄새가 난다.	
예준이가 수업 시간에 특별공부 학습지를 쓴다. / 예준이가 쓴 특별공부 학습지가 찢어진다.	

(3) 미래 시제 :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이 말하는 시정보다 () 시제, [발화시 사건시]

실현 방법	선어말 어미 ‘-겠-’, ‘-리-’ 관형사형 어미 ‘-(으)ㄹ’
예문	
민성이가 수요일 야자에 남겠다. / 야자에 남은 민성이는 슬프다.	
나는 내일 준호를 만날 것이다. / 내일 만날 준호는 우리 반이다.	

Q. 국어에도 진행상, 완료상이 있을까?